

자 기 소 개 서

성장과정

[안주하지 않는 삶]

“바나나가 익지 않은 상태는 익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익은 상태는 부패할 날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현실을 안주하기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의 가치를 믿고 확인해 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다른 학우들이 꺼리던 학급 총무, 체육대회 계주, 축제 모델 활동 등 학교에서의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가 가진 역량을 통해 현재 속한 집단에서 기여할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창 시절의 다양한 경험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 등록 후 쇼핑몰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웹페이지를 만드는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진학 후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였습니다. 총학생회 부장 임원이 되어, 홍보나 공지에 필요한 포스터 및 현수막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일의 3배가 되는 양이 주어지게 되어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도 학생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기에 수면시간을 반으로 줄이며 낮에는 학생회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학생회 일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성적 또한 4점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막연했던 꿈은 학과 공부와 총학생회 활동을 하며 점차 구체화되었고, 이에 따라 퍼블리셔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전시 회사에 실습을 나가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졸업 후 학원에 등록하여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입사 후에도 구성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찾아 업무의 질을 향상할 것입니다.

성경의 장단점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끈기와 성실함은 저의 장점입니다. 대학 진학 후 처음으로 Adobe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 다른 학우들은 저와 달리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워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께서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넘어가는 부분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매 수업 전후로 교수님께 질문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매일 학교에 남아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려워하던 강의 모두 A+라는 높은 성적을 받으며, 과에서 1등을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내는 저는 성실하며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잘 잊어버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점을 고치기 위하여 사소한 것도 메모하고 캘린더에 기록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고, 더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는 세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학우들이 압박한 과제 제출일을 알려주기도 하였고, 교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시행 일시는 언제인지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입사 후에는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일을 처리하며, 계속 변화되는 IT 산업에 발맞춰서 새롭게 나오는 프로그램 및 기술을 꾸준히 배워 나가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여 이를 해결하고, 성장 및 발전하여 회사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퍼블리셔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것은 웹디자인 관련 학과를 다니며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을 코딩으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고, 행복하였기 때문입니다. 퍼블리셔는 웹페이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 디자이너 혹은 백엔드 등의 많은 사람과 함께 작업하기에, 퍼블리셔에게 특히 필요한 자질이 협업과 존중이라 생각합니다. 대학교 총학생회 부장 임원으로 있을 당시, 축제 준비 아이디어 회의에서 학우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회 스태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체복, 이름표, 머리띠 등 다양한 방안이 나왔지만, 어둡고 불빛이 약한 실내에서는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단점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는 LED 이름표를 제안하였고, 마침내 모든 의견을 어우르며 만장일치로 사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혼자 행사 준비를 모두 하려고 하였다면 LED 이름표와 같은 새로운 의견을 떠올리기 힘들었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역시 모두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보다 나은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안할 수 있었고, 행사를 무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귀를 기울이고, 함께 업무를 해나갈 것입니다.